

경제동향

요 약

경 기 생산/출하/재고/외국인투자

고 용 취업자/실업자/물가

금 용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부동산 건설경기/주택가격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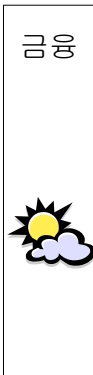
경기

- 서울 경기개선 미비
 - 재고의 하락세가 확대되었으나 산업생산 감소세가 지속되어 경기개선이 미비함
 - 산업생산은 지난해 11월에 비해 8.7% 감소, 생산자 제품재고도 6.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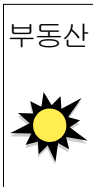
고용

- 서울 실업률 증가
 - 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로 실업률은 지난 11월에 비해 0.3%p 증가한 4.6%임
- 소비자물가 상승
 - 농축산물의 출회감소에 따른 채소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0.3% 상승



금융

- 금리 소폭 하락
 - 월초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통화당국의 금리 인상 후 소폭 하락
- KOSPI지수 사상최고치 갱신 지속
 - 경기회복세 지속, 주식관련 자금유입확대 등으로 지난 11월 대비 91.93% 상승
- 원/달러 환율 큰 폭으로 감소
 - 기업체의 수출 네고물량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하여 지난 11월 대비 큰 폭으로 평가절상
- 서울의 창업동향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 경향 지속
 - 지난해 11월 대비 신설법인수 10.9% 증가, 어음부도율 0.02% 감소



부동산

- 건축허가면적, 건설발주액 모두 증가하여 건설경기호조
 - 지난 11월에 비해 건축허가면적 15.1%, 건설 발주액 34.3% 증가
- 주택매매가격 소폭 상승
 - 강남 0.7% 상승, 강북 0.1% 상승하여 강남·북 간 상승률 격차가 확대

〈표〉 11월 주요경제 지표의 증감

(단위: %, %p)

구 분		2004.11(12)	2005.8	2005.9	2005.10	2005.11(12)
경기	산업생산	1.0	-14.9	-12.2	-13.0	-8.7
	생산자 제품재고	10.8	-9.3	-7.4	-4.8	-6.5
고용	실업률	0.2(0.3)	-0.1	0.2	0.0	-0.4(0.3)
	소비자물가	-0.6(0.1)	0.3	0.6	-0.2	-0.4(0.3)
금융	국고채(3년)	-0.27(0.03)	-0.07	0.44	0.35	0.15(-0.02)
	환율	-6.33(-1.25)	1.14	0.25	-0.09	-0.64(-21.9)
	KOSPI 지수	5.18(2.03)	-2.52	12.71	-5.15	12.03(6.31)
부동산	건축허가면적	-18.1	3.3	21.0	-47.6	-53.9
	주택매매가격	-0.4(-0.4)	0.4	0.4	0.0	0.2(0.4)

주: 괄호안은 2005.12월 자료임. 증감의 비교시점은 전년동월대비임, 단 금융, 고용, 주택매매는 전월대비임
 기상도의 그림은 경기(산업생산), 고용(실업률), 금융(증권), 부동산(주택매매가격)의 상태를 나타냄

| 생 · 산 |

서울 산업생산 하락폭 감소

○ 전국 산업생산 증가세 확대

- 전국의 산업생산은 지난해 11월에 비해 12.2% 상승하여 지난 1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임
- 반도체·휴대폰의 수출 호조 및 신차수요에 따른 자동차 생산 확대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되었음
- 세부업종별로 반도체(45.8%), 영상음향통신(15.0%), 자동차(14.1%) 등이 산업생산 증가를 주도한 반면, 섬유제품(-11.2%), 사무회계용기계(-7.3%) 등은 감소함

○ 서울 산업생산 하락폭 감소

- 서울의 산업생산은 지난해 11월에 비해 8.7% 감소
- 지난 5월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낸 이후 전국의 증가세와는 달리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내나 하락폭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임
-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인쇄출판 등의 큰 폭 감소가 지속되었지만 감소폭이 완화되고 의복 및 모피, 가구 및 기타 제품 등의 생산증가로 인해 전체적으로 감소폭은 둔화됨

○ 경공업 부문 산업생산 증가세 지속

- 중공업부문은 3개월 연속 30%대의 감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 비해 31.1% 감소
- 세부업종별로 영상음향통신 및 통신장비(-60.8%),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32.5%)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함
- 경공업부문의 산업생산은 지난달에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 비해 3.0%로 증가세 확대
- 세부업종별로 가구 및 기타 제품(56.3%), 의복 및 모피(19.7%)가 증가한 반면, 음식료품(-25.6%), 인쇄출판(-6.7%)등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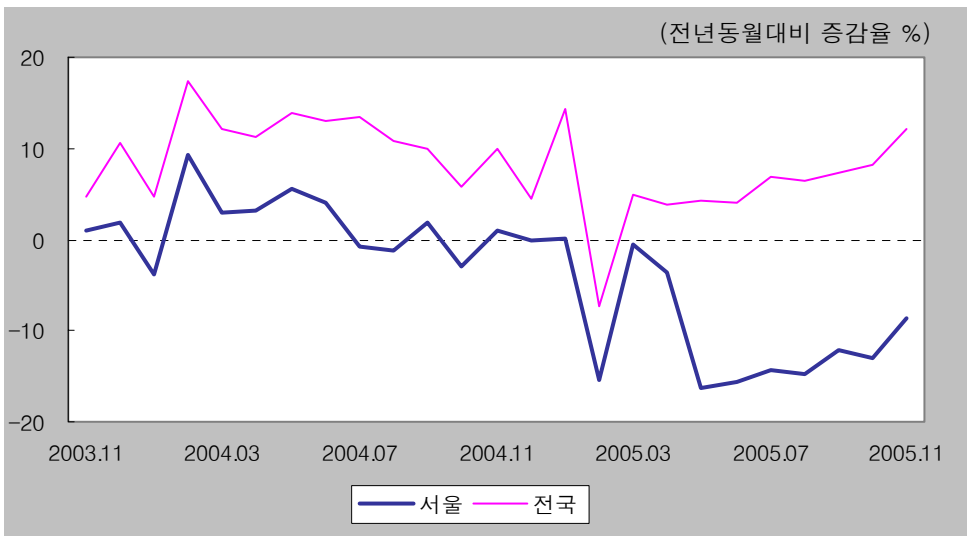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4.11	2005.8	2005.9	2005.10 ^p	2005.11 ^p
전년동월비	전국	9.9	6.4	7.3	8.2	12.2
	서울	1.0	-14.9	-12.2	-13.0	-8.7
	중공업	-1.6	-29.5	-31.3	-39.0	-31.1
	경공업	3.0	-7.2	-2.1	1.2	3.0
전월비	전국	1.1	-0.7	2.4	1.1	5.0
	서울	-0.4	-1.4	4.8	-0.1	4.2
	중공업	-2.4	-3.7	2.8	-3.9	10.2
	경공업	0.2	-3.6	11.4	9.1	2.0

주: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 전년비의 중공업, 경공업은 원지수의 증감률임
 통계표의 잠정치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 · 하 |

서울 생산자 제품출하 감소폭 축소

○ 전국 생산자 제품출하 증가세 지속

- 전국 생산자 제품출하는 지난해 11월에 비해 9.7% 증가
- 수출 호조가 지속된 가운데 내수출하도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한데에 기인함
- 세부업종별로 반도체(36.8%), 자동차(12.7%), 기타 전기 기계(12.4%) 등이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사무회계용기기(-9.4%), 섬유제품(-8.7%)등은 감소함

○ 서울 생산자 제품출하 감소폭 축소

- 서울 생산자 제품출하는 지난해 11월에 비해 12.4% 감소
- 전국의 제품출하와는 대조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지속되나 감소폭이 축소함
-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와 음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산업의 제품출하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와 가구 및 기타제품의 증가로 감소폭 줄어들음

○ 경공업 제품출하 증가세 지속

- 산업구조별로 중공업부문은 지난해 11월에 비해 40.5% 감소
- 세부업종별로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74.3%), 컴퓨터 및 사무기기(-13.9%)등이 큰 폭으로 감소함
- 경공업부문의 제품출하는 지난해 11월에 비해 4.2% 증가하여 지난달에 이어 증가세 지속
- 세부업종별로 가구 및 기타 제품(71.9%), 의복 및 모피(17.7%) 등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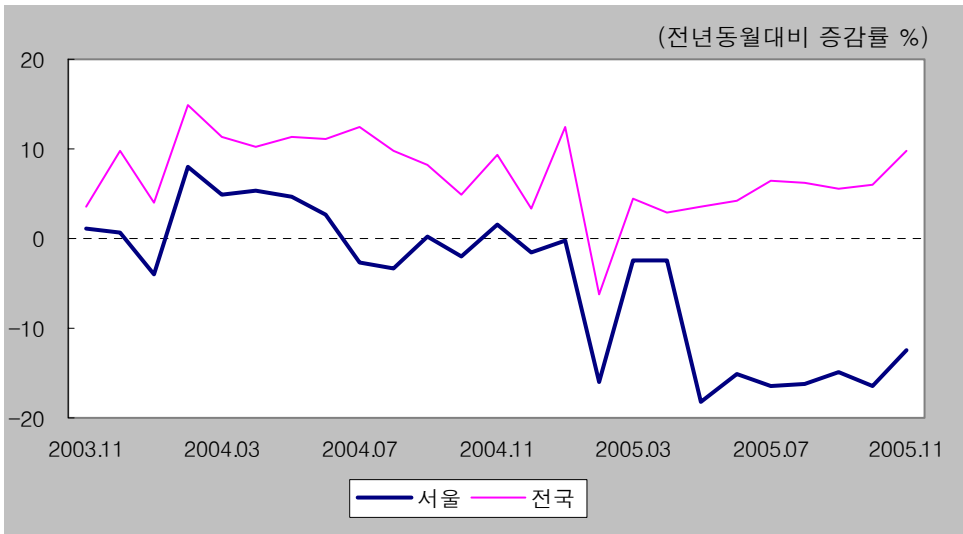
〈표〉 생산자 제품출하 증감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4.11	2005.8	2005.9	2005.10 ^p	2005.11 ^p
전년동월비	전국	9.2	6.3	5.5	6.0	9.7
	서울	1.6	-16.3	-14.9	-16.5	-12.4
	중공업	-1.8	-35.3	-36.9	-46.2	-40.5
	경공업	4.4	-5.1	-2.1	2.4	4.2
전월비	전국	1.3	-0.3	-0.7	2.1	4.1
	서울	1.4	-1.6	4.0	-0.7	5.5
	중공업	-3.6	1.2	2.2	-5.5	6.6
	경공업	2.3	-3.0	9.8	8.4	4.1

주: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 전년비의 중공업, 경공업은 원지수의 증감률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생산자 제품출하 증감률 추이

| 재 · 고 |

서울 생산자 제품재고 감소세 증가

- 전국 생산자 제품재고 증가세 둔화 지속
 - 전국의 생산자 제품재고는 지난해 11월에 비해 4.5% 증가
 - 반도체, 기계장비 부문의 재고가 감소에서 큰 폭의 증가로 전환된 반면, 자동차 부문의 재고는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함
 - 세부업종별로 의복 및 모피(26.0%), 반도체(11.9%) 등이 증가한 반면, 사무회계용기계(-18.4%), 섬유제품(-10.0%), 자동차(-1.9%) 등에서 감소함을 보임

- 서울 생산자 제품재고 감소폭 확대
 - 서울의 생산자 제품재고는 지난해 11월에 비해 6.5% 감소
 -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였으며 지난달에 비해 감소폭 확대
 - 의복 및 모피, 기타전기기계 등의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컴퓨터 및 사무기기 등의 큰 폭 감소로 인해 감소폭이 증가함

- 경공업부문 생산자 제품재고 상승폭 확대
 - 중공업부문은 지난 6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었고 11월중 40.6% 감소
 - 세부업종별로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82.6%), 컴퓨터 및 사무기기(-49.3%) 등이 감소세를 주도함
 - 경공업부문은 지난해 11월에 비해 12.2% 증가하였으나 지난달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됨
 - 세부업종별로 의복 및 모피(22.4%), 음식료품(5.1%) 등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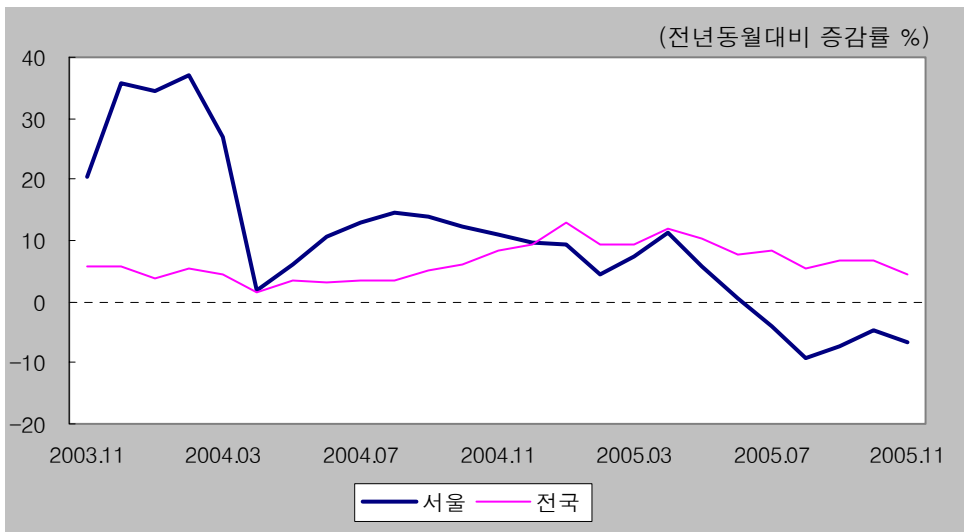
〈표〉 생산자 제품재고 증감률 추이

(단위: %)

구분		2004.11	2005.8	2005.9	2005.10 ^p	2005.11 ^p
전년동월비	전국	8.5	5.4	6.8	6.6	4.5
	서울	10.8	-9.3	-7.4	-4.8	-6.5
	중공업	-1.1	-34.4	-37.7	-41.1	-40.6
	경공업	18.7	3.2	8.4	15.5	12.2
전월비	전국	2.0	-2.4	2.6	0.2	-0.2
	서울	1.8	-2.4	4.5	3.9	0.1
	중공업	1.0	-5.5	-1.6	-2.6	1.9
	경공업	2.9	-2.1	3.2	2.6	-0.1

주: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 전월비의 중공업, 경공업은 원지수의 증감률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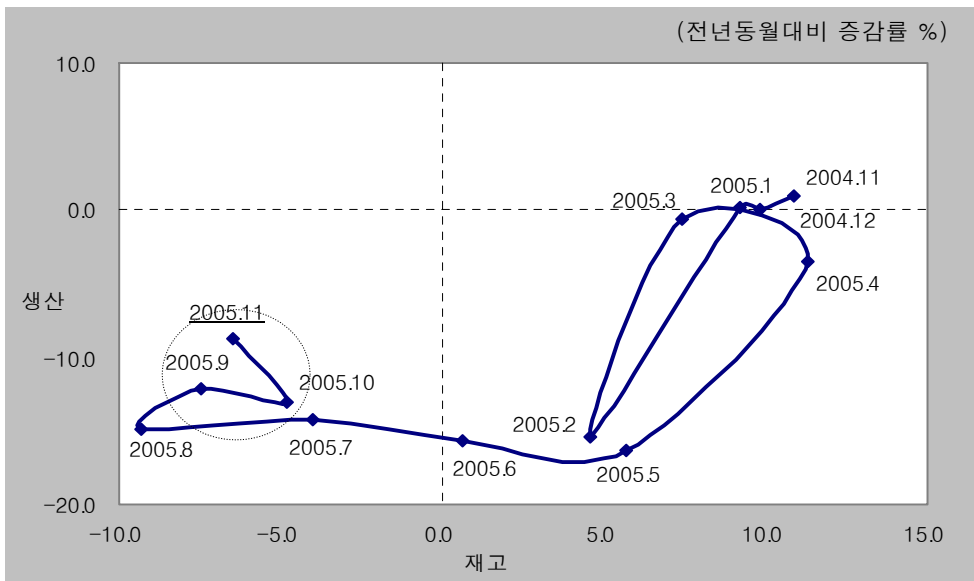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생산자 제품재고 증감률 추이

서울의 제조업 경기개선 미비

○ 서울의 제조업부문 경기개선 미비

- 생산·재고의 경기 국면 분석에 의하면 서울 제조업 부문의 경기는 재고가 감소하였으나 생산의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경기개선은 미비함
- 산업생산은 지난달에 비해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임
- 반면, 생산자 제품재고는 경공업 부문의 감소로 하락폭이 증가됨



〈그림〉 서울의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 서울의 11월 재고율 하락

- 전국의 재고율은 91.7%로 지난달보다 4.1%p 감소
- 서울의 재고율은 147.3%로 지난달보다 8.1%p 감소하였으며 전국의 재고율보다 큰 폭으로 감소
- 이는 재고지수 감소폭의 변화보다 출하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기인함

〈표〉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구 분	2004.11	2005.8	2005.9	2005.10 ^p	2005.11 ^p	
재고율	전국	96.4	94.5	97.7	95.8	91.7
	서울	137.1	147.8	148.8	155.4	147.3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100 /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외 · 국 · 인 · 투 · 자 |

서울의 외국인 투자 큰 폭 증가

○ 전국의 4/4분기 외국인 투자금액 감소

- 전국의 4/4분기 외국인 투자금액은 3,896백만 불로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10.6% 감소
- 반면 투자건수에 있어서는 466건으로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9.6% 증가
- 산업별로는 투자금액 중 전체비중의 73.7%를 차지한 서비스업이 41.9%, 제조업은 23.2%의 증가를 나타냄

○ 서울의 4/4분기 외국인 투자금액 증가

- 서울의 4/4분기 외국인 투자금액은 2,714백만 불로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192.1% 로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냄
- 투자건수에 있어서도 466건으로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9.6% 증가
-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제조업 모두 각각 183.7%, 571.4%로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냄
- 서비스업 중 통신, 문화·오락부문이 각각 2,468.2%, 1,150.0%로 크게 증가한 반면, 음식·숙박 부문 -66.7%, 공공·기타서비스 부문 -33.3% 감소
- 외국의 투자의 비중은 금융·보험(1,294백만 불), 통신(565백만 불), 비즈니스서비스업(259백만 불) 순으로 나타남

〈표〉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 불, %)

구분	2004. 4/4			2005. 4/4			증감률		
	건수	금액	금액비율	건수	금액	금액비율	건수	금액	
전체	전국	902	4,356	-	1,020	3,896	-	13.1	-10.6
	서울	425	929	-	466	2,714	-	9.6	192.1
제조업	47	35	3.8	55	235	8.7	17.0	571.4	
서비스업	374	869	93.5	403	2,465	90.8	7.8	183.7	
도·소매(유통)	217	108	11.6	207	118	4.3	-4.6	9.3	
음식·숙박	15	6	0.6	12	2	0.1	-20.0	-66.7	
운수·창고(물류)	11	102	11.0	15	145	5.3	36.4	42.2	
통신	5	22	2.4	7	565	20.8	40.0	2,468.2	
금융·보험	34	376	40.5	41	1,294	47.7	20.6	224.1	
부동산·임대	16	22	2.4	16	55	2.0	0.0	150.0	
비즈니스서비스업	65	228	24.5	78	259	9.5	50.6	13.6	
문화·오락	3	2	0.2	18	25	0.9	500.0	1,150.0	
공공·기타서비스	8	3	0.3	9	2	0.1	12.5	-33.3	
기타	4	26	2.8	8	14	0.5	100.0	-46.2	

주: 투자금액 및 금액비율은 반올림 수치이며 신고기준임

자료: 산업자원부, 서울시 투자유치담당관

| 취·업·자 |

서울의 취업자 감소세로 전환

○ 전국의 취업자 감소

- 전국의 취업자는 22,699천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2.1% 감소하여 지난 8월 이후 최저치임
- 서비스업에서의 큰 폭의 고용감소와 함께, 대실 등 날씨의 영향으로 농림어업, 건설업에서 고용이 감소한데 기인함
-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4,354천명으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서울의 취업자 소폭 감소

- 서울의 취업자는 4,938천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0.4% 감소를 보임
- 성별로는 남성이 2,833천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0.8% 감소하고, 여성은 2,106천명으로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고용여건이 상대적으로 호전됨
- 청년층(15~29세) 취업자도 지난달에 비해 0.2% 감소한 1,106천명으로 전국의 청년층 취업자 감소분과 동일한 수준임. 이는 서울이 상대적으로 신규취업자에 비해 실업자가 많은데 따른 것임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등 전반적인 감소세

-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이 지난달에 비해 2천명(-21.0%) 감소하였으며, 광공업은 772천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8천명(-1.0%) 감소
- SOC 및 기타서비스업 전체적으로 12월 들어 지난달에 비해 12천명(-0.3%) 감소
- 이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건설업이 각각 32천명(-1.8%), 3천명(-0.6%) 감소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이 21천명(1.4%), 전기·운수·통신·금융이 2천명(0.4%) 증가

○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감소세로 전환

- 직업별로는 지난달에 비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22천명(-1.5%), 서비스·판매종사자가 8천명(-0.6%) 감소하고, 사무종사자, 전문·기술·행정관리자가 각각 7천명(0.9%), 1천명(0.1%) 증가함
- 종사자 지위별로 상용근로자는 14천명(0.8%), 임시근로자는 12천(0.9%)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33천명(-5.8%) 감소하여 임금근로자 전체로는 7천명(-0.2%) 감소세를 보임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각각 13천명(-1.1%), 2천명(-0.9%) 감소하여 비임금근로자 전체로는 15천명(-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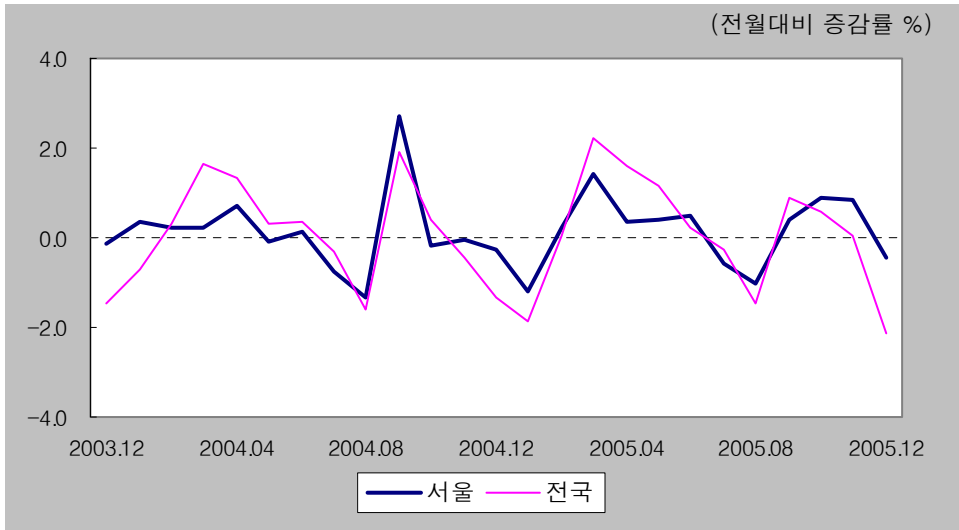
〈표〉 2005년 12월 고용동향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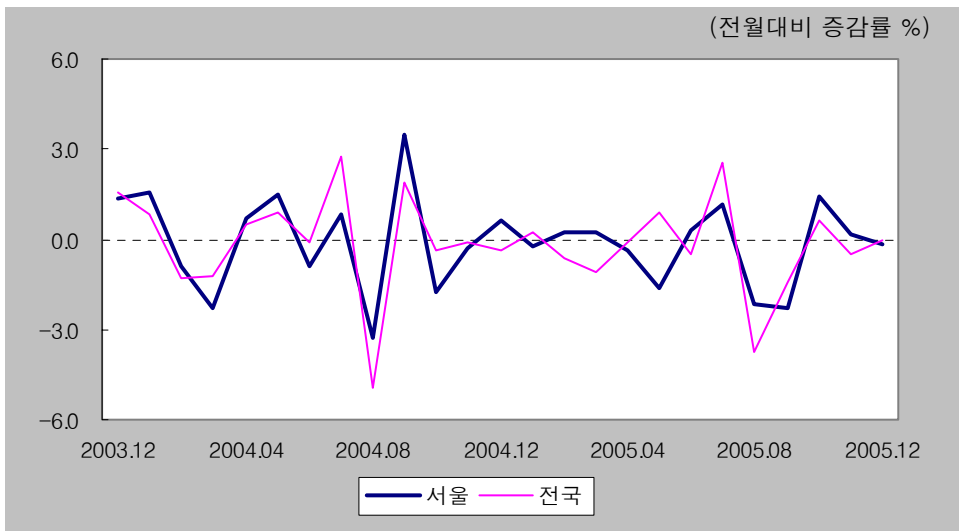
구 분		2004.12	2005.11	2005.12	전년동월비		전월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취업자	전국	22,495	23,191	22,699	204	0.9	-492	-2.1	
	서울	4,854	4,960	4,938	84	1.7	-22	-0.4	
청년층 취업자	전국	4,534	4,356	4,354	-180	-4.0	-2	0.0	
	서울	1,143	1,108	1,106	-37	-3.3	-2	-0.2	
성별 취업자	남자	2,797	2,857	2,833	36	1.3	-24	-0.8	
	여자	2,057	2,103	2,106	50	2.4	3	0.1	
서울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3	8	6	4	137.0	-2	-21.0	
	광공업	781	780	772	-9	-1.2	-8	-1.0	
	제조업	781	779	771	-10	-1.3	-8	-1.0	
	SOC 및 기타서비스업	4,070	4,172	4,160	90	2.2	-12	-0.3	
	건설업	412	412	410	-3	-0.7	-3	-0.6	
	도소매·음식숙박	1,456	1,426	1,447	-10	-0.7	21	1.4	
	사업개안·공공서비스	1,677	1,806	1,773	96	5.7	-32	-1.8	
	전기·운수·통신·금융	524	529	531	7	1.2	2	0.4	
	직업별 취업자	전문·기술·행정관리자	1,442	1,455	1,456	15	1.0	1	0.1
		사무종사자	744	797	804	60	8.1	7	0.9
서비스·판매종사자		1,262	1,270	1,262	0	0.0	-8	-0.6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4	6	6	2	45.5	0	1.6	
기능·기계조작 · 조립· 단순종사자		1,402	1,431	1,410	8	0.6	-22	-1.5	

주: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실 · 업 · 률 |

서울 실업률 소폭 증가, 청년실업률 하락

○ 전국의 실업률 소폭 상승

- 전국의 실업자는 827천명으로 지난 11월에 비해 5.3% 증가
- 실업률도 3.5%로 지난 11월에 비해 0.2%p 증가
- 4/4분기 전국 청년층 실업자는 3/4분기와 비교해 볼 때 15천명(-4.1%) 감소하고 실업률도 0.1%p 감소

○ 서울의 실업률 증가세로 반전

- 서울의 실업자는 239천명으로 지난 11월보다 7.6% 증가하였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는 감소
- 실업률은 4.6%로 지난 11월에 비해 0.3%p 증가하여 전국에 비해 1.1%p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여전히 서울의 고용여건이 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4/4분기 서울 청년층 실업자는 3/4분기와 비교해 볼 때 3천명(-3.4%) 감소하고 실업률도 8.3%로 0.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2005년 12월 실업동향

(단위: 천명, %, %p)

구 분		2004.12	2005.11	2005.12	전년동월비		전월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실업자	899	785	827	-73	-8.1	41	5.3
	실업률	3.8	3.3	3.5	-0.3	-	0.2	-
서울	실업자	254	222	239	-15	-5.9	17	7.6
	실업률	5.0	4.3	4.6	-0.4	-	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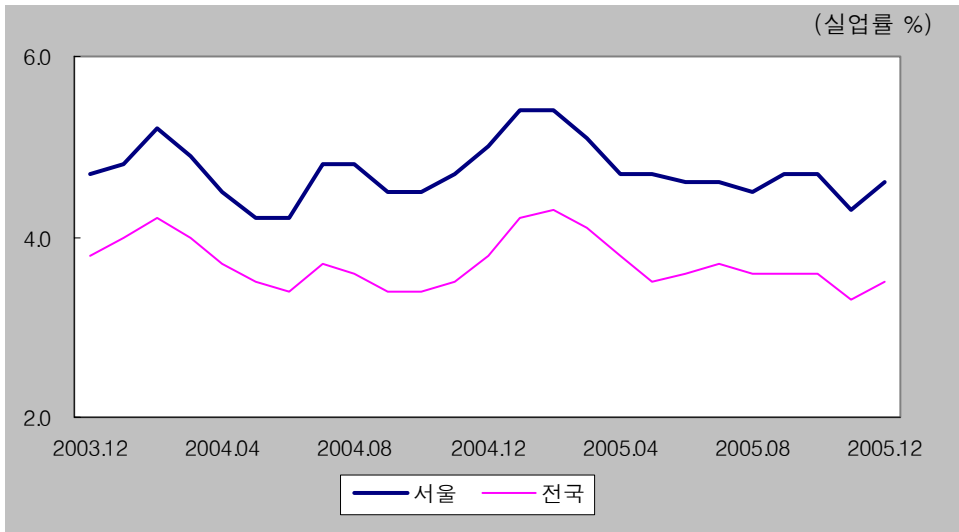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표〉 2005년 4/4분기 청년층(15-29세) 실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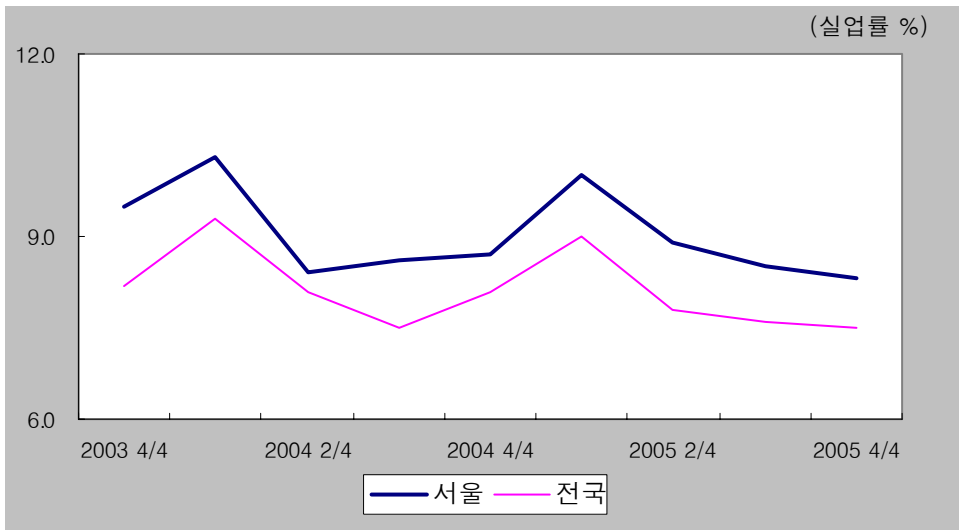
(단위: 천명, %, %p)

구 분		2004.4/4	2005.3/4	2005.4/4	전년동분기비		전분기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실업자	400	368	353	-47	-11.6	-15	-4.1
	실업률	8.1	7.6	7.5	-0.6	-	-0.1	-
서울	실업자	108	104	101	-7	-7.1	-3	-3.4
	실업률	8.7	8.5	8.3	-0.4	-	-0.2	-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청년층(15-29세) 실업률 추이

| 물 · 가 |

서울 소비자 물가 상승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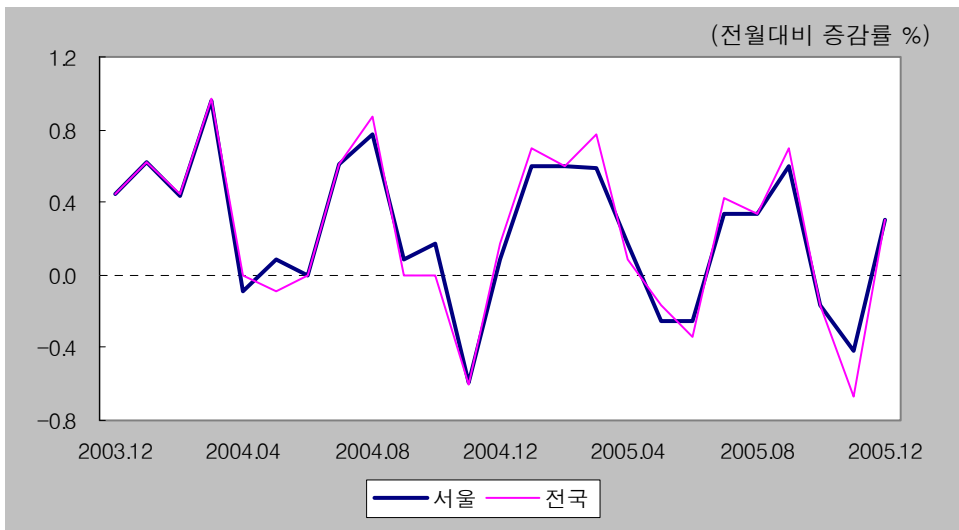
-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세로 전환
 - 전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 11월에 비해 0.3% 상승
 - 이는 폭설과 한파에 따른 농축산물의 출회감소 등으로 인해 채소류 등의 가격이 오르고 공업제품,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의 요금이 증가한데 기인함
- 서울 소비자물가 상승세로 전환
 - 서울의 소비자물가도 지난 11월에 비해 0.3% 상승하여 지난 9월 이후 3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
 - 이는 추위와 폭설로 출회가 부진하여 채소류 가격이 오른 식료품(1.0%)과 기타잡비(0.8%), 광열·수도(0.3%), 교양오락(0.3%) 부문 등이 상승한 것에 기인함
- 상품 부문, 서비스 부문 모두 상승
 - 상품성질별로는 출회가 감소한 농축수산물(2.2%)과 금반지 등의 공업제품(0.2%)이 각각 상승하여 상품 부문이 지난 11월에 비해 0.7% 상승
 - 집세는 0.1% 하락하였으나 자동차 보험료 등이 오른 공공서비스(0.1%)와 개인서비스(0.2%)요금이 각각 상승하여 서비스 부문 전체적으로 지난 11월에 비해 0.1% 상승
 - 비목별로는 식료품(1.0%), 기타잡비(0.8%), 광열·수도(0.3%), 교양오락(0.3%), 가구 집기·가사용품(0.2%) 등이 전반적으로 지난 11월에 비해 상승함
- 생활물가지수 및 신선식품지수 하락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 생필품을 위주로 하는 생활물가는 지난 11월에 비해 0.5%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과일류, 채소류, 어개류 모두 증가하여 지난 11월에 비해 3.7% 상승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0=100, 단위: %)

구분		2004.12	2005.9	2005.10	2005.11	2005.12	
전년동월비	전국	3.0	2.7	2.5	2.4	2.6	
	서울	3.2	2.4	2.0	2.2	2.5	
	성질별	상품	3.5	3.5	2.8	2.8	3.6
		서비스	2.9	1.6	1.6	1.8	1.6
	생활물가	4.9	3.8	3.2	3.5	4.0	
	신선식품	1.4	4.1	1.3	0.6	6.2	
전월비	전국	0.2	0.7	-0.2	-0.7	0.3	
	서울	0.1	0.7	-0.2	-0.4	0.3	
	성질별	상품	-0.2	1.5	-0.3	-1.5	0.7
		서비스	0.3	0.0	0.0	0.3	0.1
	생활물가	0.0	1.1	-0.2	-0.8	0.5	
	신선식품	-1.8	5.8	-1.5	-8.2	3.7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장기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원/달러 환율 큰 폭으로 감소

○ 국고채 유통수익률 소폭 하락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대 및 미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통화당국의 금리 인상 후 하락하여 5.08%를 기록함
- 회사채 수익률(3년)은 지난 11월에 비해 0.01%p 상승한 5.52%를 나타냄
- 회사채는 0.1조원 상승하여 소폭 순발행으로 돌아섰으나 사모사채로의 전환(은행의 사모사채 인수 규모 : 1.4조원(11월중 +1.2조원)) 등으로 그 실적은 여전히 저조

○ CD 유통수익률 소폭 상승

- CD(91일) 유통수익률은 콜금리목표 인상의 영향으로 지난 11월에 비해 0.14%p 상승한 4.09% 를 기록
- 콜금리(1일)는 중립적 정책기조를 위한 금통위의 2차 조치이며 지난 11월에 비해 0.25%p 상승한 3.75%를 기록

○ 장단기 금리차 감소세로 반전

- 단기금리는 소폭 상승함에 반해 장기금리는 감소하여 장단기 금리차는 월초 1.64%p에서 월말 1.33%p로 감소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 %p, 말일기준)

구 분	2005.8	2005.9	2005.10	2005.11	2005.12	2006.1.23.	전월비	
금 리	국고채(3년)	4.16	4.60	4.95	5.10	5.08	4.96	-0.02
	회사채(3년)	4.59	5.00	5.34	5.51	5.52	5.45	0.01
	CD(91일)	3.51	3.93	3.95	3.95	4.09	4.16	0.14
	콜금리(1일)	3.25	3.28	3.51	3.50	3.75	3.74	0.25
	장·단기Spread	0.91	1.32	1.44	1.60	1.33	1.22	-0.27
주 가	종합주가지수	1,083.33	1,221.01	1,158.11	1,297.44	1,379.37	1,297.43	81.93
	코스닥	503.95	571.95	587.46	712.39	701.79	601.33	-10.6
환률(VUS\$)	1,038.50	1,041.10	1,040.20	1,033.50	1,011.60	981.30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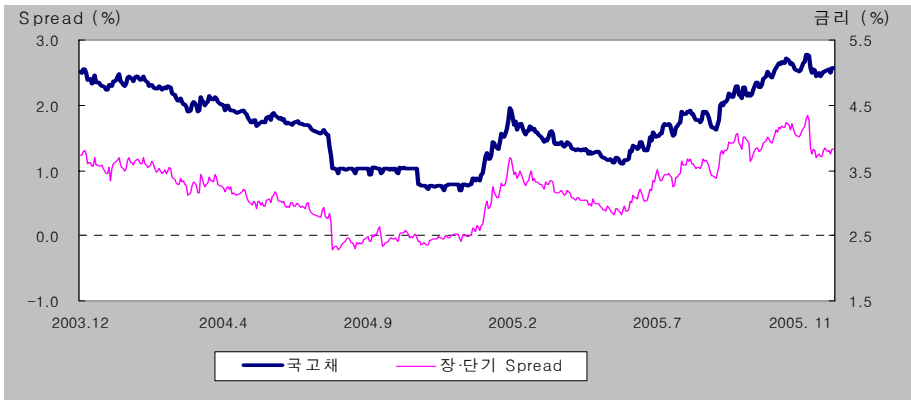
주: 장단기 Spread: 국고채-call금리.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률은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산업은행

○ KOSPI 지수 사상최고치 갱신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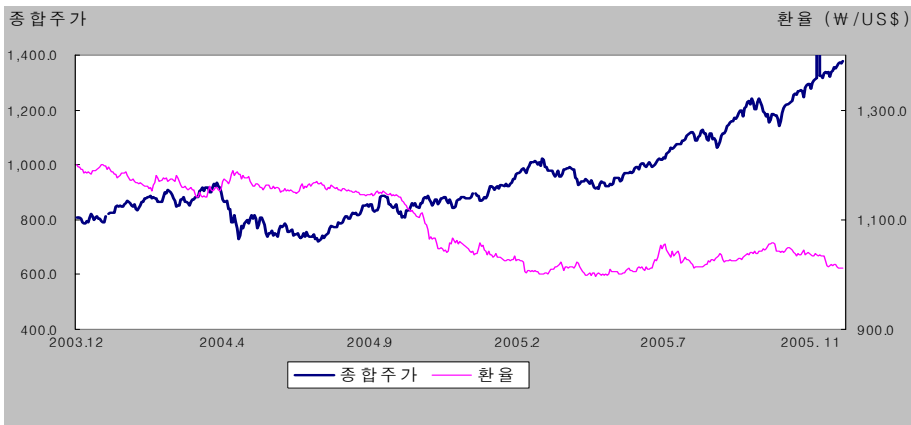
- KOSPI 지수는 경기회복세 지속, 기업실적 호조 기대, 주식관련 자금 유입 확대 등으로 사상최고치를 계속 갱신하여 지난 11월에 비해 91.93% 상승한 1,379.37p 기록
- 코스닥지수는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전환과 줄기세포 사태 등의 영향으로 지난 11월 대비 10.6%감소한 701.8p를 기록하였음
- 이는 연초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 경기회복 기대감, 글로벌 기술주 강세, 주식형 펀드 증가에 따른 기관투자자 순매수 등으로 지난해 말 대비 큰 폭(+321.5p)으로 상승한 수치임

○ 원/달러 환율 큰 폭으로 감소

- 원/달러 환율은 연말을 앞두고 기업체의 수출 네고물량 부담이 가중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 마감 가능성이 부각됨에 따라 큰 폭으로 평가절상
- 원/달러 환율은 지난 11월에 비해 21.9% 감소하여 종가기준 1,011.6원을 기록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창·업·동·향 |

서울 신설법인 수 증가세 지속

- 전국 신설법인 수 증가세로 반전
 -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4,199개 업체로 지난해 11월 대비 3.9% 증가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32.5%)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9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제조업(-34.2%), 건설 및 설비업(-27.6%)은 감소세 지속
- 서울 신설법인 수 서비스업, 건설 및 설비업을 위주로 증가세 지속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699개 업체로 지난해 11월 대비 10.9% 증가하며 증가세 지속
 - 지난 11월 대비 제조업은 13.7%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5.5%)와 건설 및 설비업(0.6%)은 증가세 지속
- 건설 및 설비업 신설법인 수 증가세 지속
 - 건설 및 설비업의 신설법인수는 7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건설업이 5.1% 증가세 기록한 반면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은 28.6% 감소
- 서비스업 신설법인수 증가한 반면 제조업 신설법인 수 감소
 - 서비스업의 세부업종별로는 기타서비스업(76.5%), 사업 서비스업(18.3%) 등이 증가한 반면, 교육 서비스업(-22.7%), 부동산 및 임대업(-12.1%) 등이 감소
 - 제조업의 세부업종별로는 고무 및 화학제품(77.8%), 기계, 금속업(42.9%) 등이 증가하였으며, 목재, 가구 및 종이제품(-84.2%), 자동차 및 운송장비(-66.7%) 등이 감소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 분	2004.11	2005.10	2005.11	전년동월비		전월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041	4,025	4,199	158	3.9	174	4.3
서울	1,532	1,648	1,699	167	10.9	51	3.1
서비스업	1,135	1,334	1,409	274	24.0	75	5.5
제조업	220	153	132	-88	-40.0	-21	-13.7
건설 및 설비업	174	158	159	-15	-8.6	1	0.6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의 어음부도율 보험상태

○ 전국의 어음부도율 소폭 감소

-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부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말일자(토요일) 어음의 결제 이월 등의 이유로 지난 11월 대비 0.01%p 하락한 0.02% 기록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256개로 지난해 12월 보다 157개 감소

○ 서울의 어음부도율 0.01%로 보험상태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지난 11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함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88개로 지난해 12월 보다 71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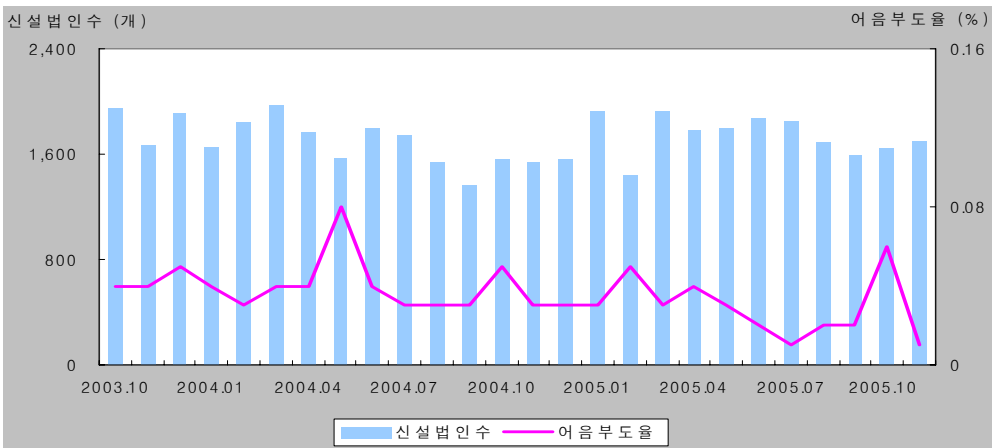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 %, %p)

구 분		2004.12	2005.11	2005.12	전년동월비 증감	전월비 증감
전국	어음부도율	0.05	0.03	0.02	-0.03	-0.01
	부도업체 수	413	313	256	-157	-57
서울	어음부도율	0.03	0.01	0.01	-0.02	0
	부도업체 수	159	105	88	-71	-17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부도업체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용·보·증·동·향 |

영세 자영업자 대상 신용보증 확대 계속

○ 특례보증 지원으로 인한 보증지원 확대 지속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보증은 12월 중 2,767건, 32,168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건수 259.4%, 금액 36.2% 증가하였음
- 지난 11월에 비해서는 건수, 금액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는 9월말 시행된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점차 종료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장기저리의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일반보증 공급이 감소한데 기인함

〈표〉 월간 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p)

구 분	2004.12	2005.10	2005.11	2005.12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수	770	2,225	3,759	2,767	465.3	68.9
금액	23,622	30,600	47,033	32,168	177.3	53.7
건당 평균 금액	30.7	13.8	12.5	11.6	-13.0	-1.3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업종별 신용보증 음식·숙박업 비중 증가

- 12월 31일 현재 업종별 신용보증 잔액은 특례보증에 따라 금액 기준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업은 지난 11월 대비 0.8% 증가한 반면 금액비율이 높은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은 지난 11월 대비 동일하거나 감소하였음

〈표〉 업종별 신용보증 잔액현황 (2005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업체수	4,628	17,577	8,989	8,274	2,214	41,692
비율	11.1	42.2	21.6	19.8	5.3	100
금액	108,596	346,111	137,487	158,294	47,923	798,411
비율	13.6	43.4	17.2	19.8	6.0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잔액 소상공인 비중 지속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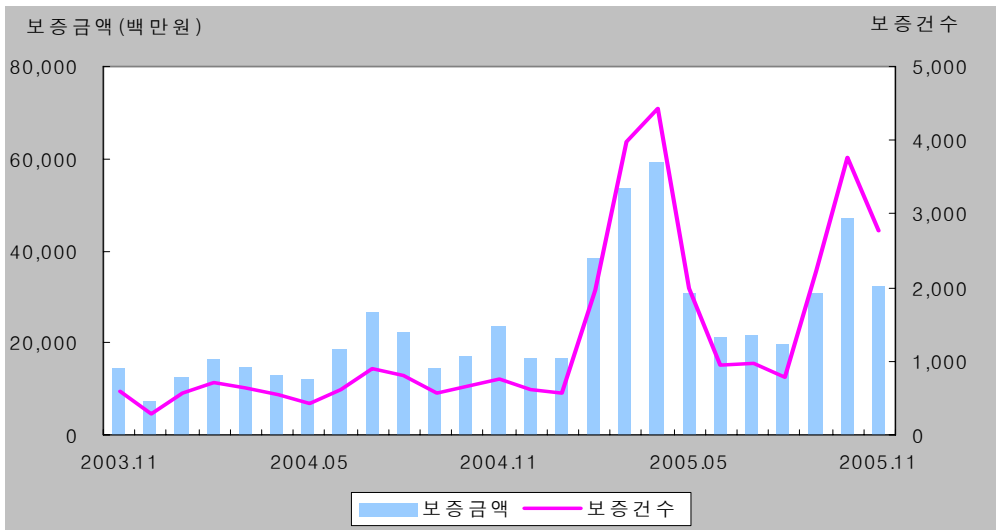
- 12월 31일 현재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잔액은 특례보증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바 지난 11월에 비하여 금액기준으로 1.1% 증가하여 85.5%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각각 0.7%씩 감소하였음

〈표〉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잔액현황 (2005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합계
업체수	39,026	2,466	200	41,692
비율	93.6	5.9	0.5	100
금 액	682,839	92,195	23,377	798,411
비율	85.5	11.6	2.9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동향

| 건·설·경·기 |

서울의 건설경기 회복세

-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지난달에 이어 감소세 지속
 -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11월에 비해 14.3 감소하였으며 지난 10월에 비해서는 8.1%감소하여 감소세 지속
 - 지역별로는 울산(132.9%) 및 강원도(108.6%)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부산(-59.3%) 및 대전(-58.3%)에서 감소세를 나타냄
 - 건설발주액은 지난해 11월에 비해 3.6% 증가하였으며 지난 10월 비해서는 19.3% 증가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회복세
 -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지난 10월에 비해 15.1% 증가함으로써 건설경기 회복세를 보임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11월에 비해 67.8%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지난 10월에 비해서는 37.8%나 증가함으로써 지난 10월까지 이어졌던 침체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임

〈표〉 건축물 허가면적

(단위: 천㎡, %)

구분		2004.11	2005.10	2005.11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국		9,744	9,090	8,355	-14.3	-8.1
서울		1,322	530	610	-53.9	15.1
주거용	소계	420	98	135	-67.8	37.8
	단독	12	9	13	10.8	44.4
	연립	56	47	52	-6.5	10.6
	아파트	352	43	67	-81.0	55.8
비주거용	소계	902	432	475	-47.3	10.0
	상업	549	236	370	-32.6	56.8
	공업	131	30	8	-93.9	-73.3
	문교/사회	128	151	75	-41.6	-50.3
	기타	94	15	19	-79.7	26.7

주: 연립은 다세대-다가구 포함

자료: 서울시 건축과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중 전월 하락세를 주도하던 아파트가 11월에는 큰폭(55.8%)으로 상승하여 상승세를 주도
- 비주거용 건축물의 허가면적은 지난해 11월에 비해 모든 업종들이 하락하였고, 지난 10월에 비해서는 공업(-73.3%), 문교/사회(-50.3%)감소함으로써 하락세를 주도함

○ 용산구, 구로구, 강동구 등에서 건축허가면적 상승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11월에 비해 중구(3,806.8%), 강동구(928.5%) 등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송파구(-93.3%), 서초(-93.0%) 등에서 감소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 중 상업용은 지난해 11월에 비해 32.63% 감소 추세 속에 구로구(1,819.82%), 강동구(761.64%) 등에서 상승하였으며 서대문구(-88.56%), 영등포구(-87.59%) 등에서 감소

○ 건설발주액 증가세로 반전

- 서울의 건설발주액은 지난 10월까지 이어지던 감소세에서 34.4% 증가하며 증가세로 반전
- 전국의 건설발주액은 역시 증가세(19.3%)로 반전

○ 건설발주액 민간 및 토목부분 발주액 증가

- 민간부분발주(9.2%)는 신규주택 및 오피스텔의 발주 증가로 소폭 증가한 반면 공공부분발주(-22.7%)는 감소하여 민간부분의 발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토목부분발주는 58.8% 증가, 건축부분발주는 -2.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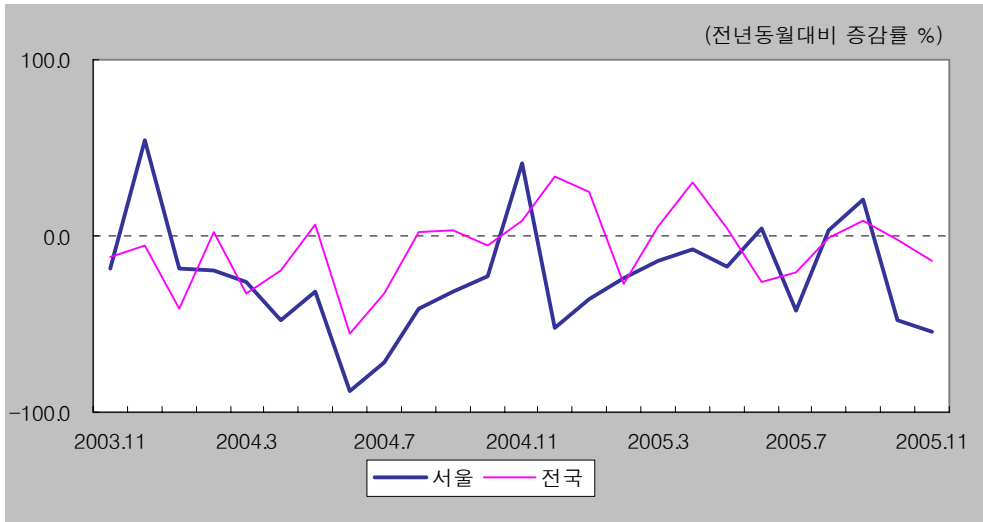
○ 건축허가면적, 건설발주액 모두 증가하여 건설경기 호조를 보임

〈표〉 건설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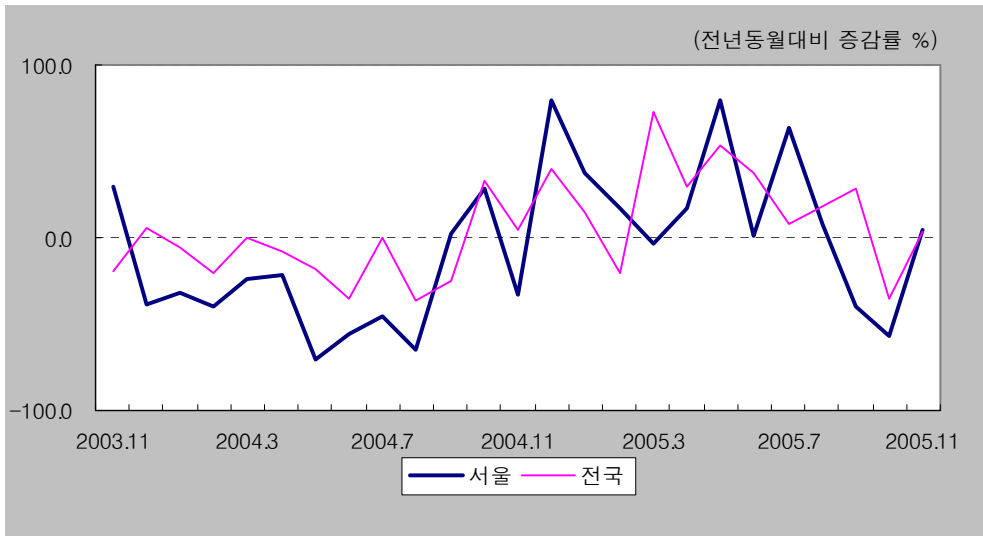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4.11	2005.10	2005.11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국	6,149,880	5,343,473	6,373,611	3.6	19.3	
서울	938,928	728,759	979,713	4.3	34.4	
발주자별	공공	297,452	73,043	229,782	-22.7	214.6
	민간	641,476	631,893	700,508	9.2	10.9
공종별	건축	886,367	684,330	861,624	-2.8	25.9
	토목	46,723	13,965	74,201	58.8	431.3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발주액 추이

| 주 · 택 · 가 · 격 |

주택매매가격 소폭 상승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2개월간의 보합세를 접고 상승세로 반전
 - 전국의 12월중 주택매매가격은 낙폭 과대 급매물 소진 후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아 거래부진 현상은 지속 되었으나 방학 이사수요 등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세가 소폭 증가하면서 2개월간의 보합세를 접고 0.2%의 상승세를 보임
 - 전통적 전세 비수기인 12월의 전세시장은 한파가 겹치면서 수요가 감소하여 거래부진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는 96.2(2003.9=100)로 지난 11월과 동일하게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소폭 상승
 - 서울의 12월중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11월 대비 0.4%의 소폭 상승세를 나타냄
 - 지역별로는 강남이 0.7%, 강북이 0.1% 상승하는 등 강남지역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강남·강북 간 상승률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강북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지난 11월과 동일
 - 강북의 주택매매가격(0.1%)은 상승폭이 지난 달과 동일함
 - 구별 주택매매가격은 성동구(0.3%), 종로구(0.3%)의 상승폭이 크고, 중구(-0.2%), 노원구(-0.1%) 등에서 소폭 감소함
 - 구별 아파트 매매가격은 성동구(0.8%), 광진구(0.5%), 종로구(0.5%)에서 상승한 반면, 중구(-0.5%), 강북구(-0.2%), 중랑구(-0.2%)등에서 하락세를 나타냄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3.9=100.0, 단위: %)

구 분	2004.12	2005.9	2005.10	2005.11	2005.12	
전국	-0.4	0.2	0.0	0.0	0.2	
서울	-0.4	0.4	0.0	0.2	0.4	
아파트(서울)	-0.4	0.2	-0.2	0.2	0.5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0.4	0.5	0.2	0.1	0.1
	강남	-0.5	0.2	-0.2	0.3	0.4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남의 주택매매가격 2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강남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11월 대비 0.7% 증가하여 2개월간 상승세 지속됨
- 강남지역 아파트는 지난 11월 대비 0.8% 증가하여 주택매매가격 상승세를 주도함
- 구별 주택매매가격은 송파구(1.9%), 양천구(1.1%) 등에서 상승한 반면, 관악구(-0.2%), 구로구(-0.1%) 등에서 하락세를 나타냄
- 구별 아파트 매매가격은 양천구(1.5%), 송파구(1.3%) 등에서 상승한 반면, 구로구(0.0%), 금천구(0.0%)에서는 보합상태를 나타냄

○ 서울의 주택 전세가격 3개월 연속 상승폭 둔화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12월중 0.2% 상승하여 지난 11월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며 3개월 연속 상승폭 둔화현상을 나타냄
- 구별로는 송파구(1.0%), 강남구(1.0%)등 주로 강남지역에서 큰 폭의 상승이 두드러졌으며, 동대문구(-0.7%), 관악구(-0.4%)등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짐

○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 둔화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12월중 0.4% 상승하며 지난달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됨
- 강북은 0.2%, 강남은 0.5 상승함에 따라 강북·강남 모두 상승세를 나타냄
- 구별로는 강남구(1.1%), 양천구(1.0%), 송파구(0.9%)의 상승폭이 크고, 강북구(-0.5%), 서초구(-0.5%) 등에서 하락함

○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지난달과 동일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8.4%로 전월 대비 동일하므로 주택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 지역별 비율 지난 11월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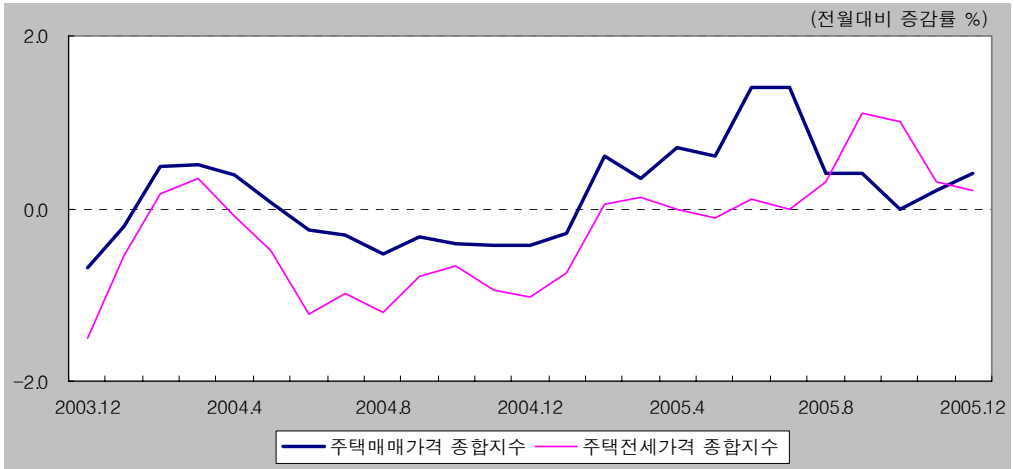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3.9=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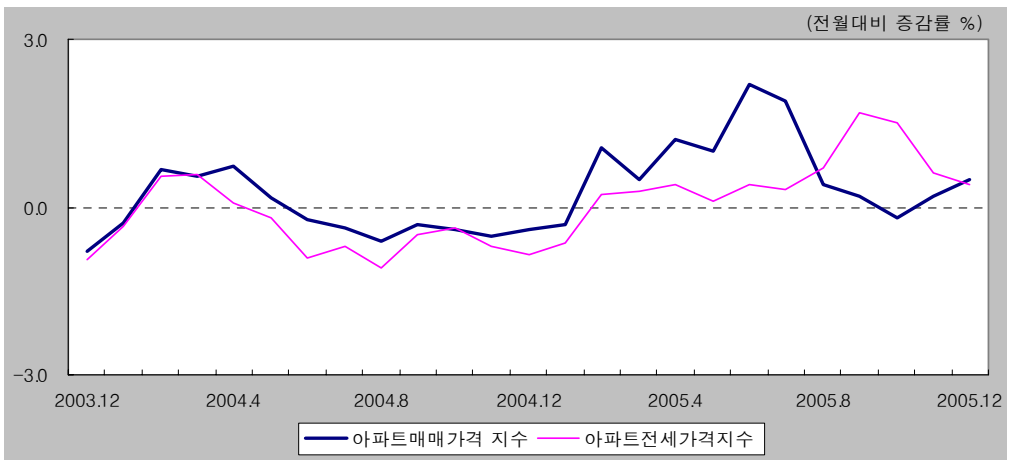
구 분		2004.12	2005.9	2005.10	2005.11	2005.12
전국		-0.8	0.8	0.7	0.2	0.2
서울		-1.0	1.1	1.0	0.3	0.2
아파트(서울)		-0.9	1.7	1.5	0.6	0.4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1.0	0.7	0.6	0.0	0.1
	강남	-1.0	1.5	1.3	0.5	0.4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